

탄핵정국에 캠코·기보 등 금융 공기업 연말 인사 올스톱

금융위 인사 절차 일시 중단
기관장 후보군도 불투명해져
기존 기관장 업무대행 가능성

‘탄핵 정국’ 여파가 금융 공기업 최고 경영자(CEO) 인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등 다수 금융 공기업 기관장이 임기를 마쳤거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탄핵 정국으로 후임 기관장을 추천 및 검증해야 할 정부와 대통령실의 기능에 차질이 생기면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연말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인사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의 교체 포함 이번 인사는 지난 7월 말 김병환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첫 인사가 될 예정이었다.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위 산하 공기업의 기관장 인선에도 그 여파가 미쳤다. 금융위 인사가 중단되면서 기관장 후보군이 불투명해졌고, 후보자를 검증 및 최종 승인해야 할 대통령실



부산 남구 문현동금융단지 전경. 문현동금융단지에는 캠코,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공기업이 다수 밀집해 있다. /뉴스시스

의 직무도 정지되면서다.

정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은 각 주무부처의 장관이 후보자를 제정하면 대통령실이 이를 검토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기관장으로는 금융위, 기재부, 한국은행 등 정부 출신 인사나 정치권 인사가 주로 부임하는 만큼, 공기업 인사

는 총선이나 주무부처의 인사와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잦다.

권남주 캠코 사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오는 1월로 임기를 마친다. 관련 법령이 기관장 임기가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추위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금융위 인사와 맞

물려 후임자가 결정될 것이라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두 기관은 아직 임후보조차 마치지 못했다.

기술보증기금·한국벤처투자·창업진흥원 등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들도 최근 기관장의 임기가 잇따라 종료됐지만, 후임자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2017년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이었으며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인 만큼 금융위의 영향력도 여전하다

후임 기관장 결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실제 업무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기존에도 임기가 만료된 공기업 기관장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기존 기관장이 업무 대행을 이어가는 경우가 잦았다.

지난 9월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최고경영자(CEO) 사장의 임기 만료 8개월 만에 새 사장이 부임했고, 코스콤도 홍우선 전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 10개월 만에 새 대표이사를 선임한 바 있다.

다만 비상계엄 여파로 각 정부 부처가 비상 체제로 돌입하면서 인사의 우선

순위가 뒤로 밀려났고,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로 대통령실의 기능도 정지한 만큼 인선 지연은 길어질 전망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대신해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지만, 인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기술보증기금 기관장 선임을 강행한 바 있지만, ‘알박기’ 논란 속에 1년 만에 불명에 퇴진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혹은 차기 대선 이후에야 금융 공기업 인선이 정상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금융 공기업 관계자는 “통상 임추위 구성 이후 후보 접수와 검증, 추천 등 절차에는 2~3개월이 소요되는데, 해당 절차를 끝마치더라도 임명권자인 대통령 재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는 여러 기관이 비슷한 상황으로, 당분간은 현 기관장들이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AI가 미래”... 보험사, 디지털 역량 제고

한화생명, 생성형AI 활용 혁신 주도
고객맞춤형 화법·대화 솔루션 개발
교보생명, 생성형AI 보장분석서비스

보험업계가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와 함께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다. 현재의 고객 경험 개선은 물론 가치 투자를 통해 미래 수익성까지 이어가겠다는 포석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한 금융사의 10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보험사 중에선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선정됐다.

한화생명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고객 만족도를 제고했다. ‘고객맞춤형 화법 생성 및 가상대화 훈련 솔루션’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혁신성과 소비자 편의성을 인정 받았다.

보험설계사는 해당 솔루션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해 고객 상담을 준비한다. 가상대화를 통해 실전 같은 상담 훈련으로 역량을 향상할 수 있다. 고객 맞춤형 화법 생성으로 맞춤형 상품 안내를

통해 고객 만족도도 높였다.

앞서 한화생명은 지난 2014년부터 빅데이터 TF를 설립하고 머신러닝과 딥러닝 등 AI를 보험산업에 접목해왔다. 올해 6월엔 AI연구소도 출범시켜 AI와 금융의 융합을 통한 디지털 혁신 전략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달에는 글로벌 AI 역량 강화의 전진기지 역할을 위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AI센터를 개소했다. AI 산업의 중심지 샌프란시스코에서 현지 생태계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현지 유수 대학, AI 스타트업, 투자사 등과의 활발한 네트워킹 및 협업에 나선다.

한화생명은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AI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2014년부터 10년 넘게 AI 연구에 투자해 2020년부터는 매년 AI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디지털 혁신과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도 ‘생성형 AI 활용 보장 분석 서비스’를 개시했다. 해당 서비스로 고객의 상담 시간을 단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장 내용 제안에 나선다.

/김주형 기자 gh471@

올 서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 112대 1

인터넷 청약 도입 후 역대 두번째
강남·서초구만 전체의 58% 차지

올해 서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100대 1을 넘어설 전망이다. 치열했던 청약 열기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 평균은 112.8대 1로, 지난해 56.9대 1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1년(163.8대 1)

을 제외하면 인터넷 청약이 도입된 2007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이다.

핵심 지역에서 알짜 아파트 공급이 이어진 것이 경쟁률을 높였다. 강남구, 서초구 2곳에만 34만5000여개의 청약이 몰렸고 이는 전체 청약의 약 58%를 차지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대비 저렴한 아파트가 공급된 탓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대치 에델루이’의 1순위 청약에는 해당지역

에서만 3만7000여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025대 1을 기록했다. 역대 서울 지역 분양 단지 중 최고 경쟁률이다.

분양제가 적용돼 전용면적 84㎡ 기준 최대 22억원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된 반면 인근에 위치한 ‘래미안대치팰리스’의 비슷한 평형 매물과 비교해 약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면서다.

향후 서울 아파트 공급 가뭄이 심화될 것이라는 것도 청약 열기에 힘을 보탤 것이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내년 3만5000여 가구를 기록하고 이후 1만여 가구를 밀출 전망이다.

/전지원 기자 jiw13@

KB금융, 코리아 밸류업 지수 추가 편입

업계 첫 자사주 매입소각 등 도입
기업가치 제고 노력 꾸준히 높여

KB금융그룹이 코리아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지수에 신규 편입됐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밸류업 지수 발표일인 지난 9월 24일 이후부터 이달 6일까지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기업 51개 사 중 지수 편입 기업 43개사를 심사해 KB금융을 포함한 5개 종목을 신규 편입했다.

KB금융은 업계 최초 자사주 매입소각과 분기 배당 도입,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 발표, 배당 총액 기준 분기 균등 배당 도입 등 한 차원 높은 주주환원정책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꾸준히 높여왔다.

올해 4월에는 업계최초로 ‘배당총액 기준 분기 균등배당’이라는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 바 있다. KB금융

은 ▲올해부터 분배당을 시행하고 ▲주당 현금배당금은 배당총액(분기별 3000억원 수준, 연간 1조2000억원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간 배당금액 총액 1조2000억원 수준을 최소한 유지 또는 확대를 원칙으로 운영하면서 배당성향은 이익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보통주자본(CET1)비율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밸류업 방안’을 공시했다. 이를 통해 KB금융은 2025년부터 CET1비율 13%를 초과하는 잉여자본은 주주에게 환원하고 총주주환원율도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말에 CET1비율 13%가 넘는 잉여자본은 2025년 1차 주주환원의 재원으로, 2025년 연중 13.5%를 초과하는 잉여자본은 하반기 자사주·매입소각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안שמ 기자 smahn1@

광주은행, 고병일 현 은행장 연임 확정

광주은행은 오는 12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고병일 은행장(사진)의 연임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JB금융지주 자회사 CEO후보추천위원회는 최근 차기 광주은행장 후보로 고병일 현 은행장을 단독 추천했다. 이어 광주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고 병장을 단독 후보로 최종 확정됐으며, 17일 주주총회를 통해 공식 선임했다. 임기는 1년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1966년 광주광역시 출생으로 금호고, 전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광주은행에 입행해 임방울대리점장, 개인영업전략부장, 종합기획부장, 영업1본부 부행장, 경영기획본부(CFO) 겸 자금지장본



부 부행장 등을 지냈으며, 2023년 제14대 광주은행장으로 취임했다.

고병일 은행장은 지난 2년의 임기 동안 지역밀착 상생경영에 집중하고, 광주광역시 1급고수성, 핀테크와의 연계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지역사회 환원 확대 등 성과를 높게 평가받았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최근 국내외 금융환경의 변동성 확대에 따라 힘든 시기가 예상되지만, 변화와 혁신으로 내실있는 질적 성장을 이뤄내 리딩뱅크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